

 <b>국토교통부</b>	<b>보 도 자 료</b>		
	<b>배포일시</b>	2020. 4. 6.(월) 총 2매(본문 2)	
<b>담당 부서</b> 교통정책조정과	<b>담당자</b>	·과장 박지홍, 서기관 황현주, 사무관 이은영, 주무관 운영대 ·☎ (044) 201-5579, 3786, 3791, 3794	
<b>보 도 일 시</b>	즉시 배포 가능 합니다		

## 한-프, 교통부문 코로나19 대응 협력방안 논의

### 항공·철도·버스 등 교통 분야 대응방안 논의.. 코로나19 극복 위해 적극 소통기로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장-바티스트 제바리(Jean-Baptiste DJEBBARI) 프랑스 생태포용전환부 국무장관 요청으로 4.6.(월) 오후, 약 30분간 김현미 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.
  - 양 측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중요한 것은 국가 간 협력, 정부와 지역사회의 소통과 협조를 통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.
- 특별히, 제바리 국무장관은 한국의 방역체계를 모범사례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, 교통 분야에서 코로나19 전파 억제를 위한 한국의 대응 노하우를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.
- 김 장관은 “한국은 지역간 이동제한 및 대중교통 전면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, 대중교통 이용으로 인한 코로나19 전파사례는 확인된 바 없다.”면서 “개방성·투명성의 원칙 아래, 강도 높은 ‘사회적 거리두기’ 지침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와 관련 업계의 협조,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코로나19 억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”고 강조하였다.
  - 특히, 대중교통의 경우, ‘대중교통 분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’에

따라 대중교통 업계에서 교통시설과 차량에 대해 최고수준으로 방역을 강화하고, 승객 간 좌석을 이격 배정하는 한편,

- 국민들도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하고,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, 자발적으로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, 가급적 대화는 자제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.

□ 한편, 제바리 국무장관은 드라이브 스루 진단방식, 데이터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(IT) 기술을 이용한 우리 정부의 선진적인 경험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는 한편,

- 한국이 '15년 메르스(중동호흡기증후군) 경험을 토대로,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확진자들의 개인정보를 역학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법적 근거를 마련(「감염병예방법」 개정, '16.12)한 것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였다.

- 이에 대해 김 장관은 “범정부적 연대와 협력으로 구축된 「코로나 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」으로 확진자 동선 파악이 더욱 정확하고 빨라졌다(기존 1일→10분으로 단축)”면서, “이 시스템이 방역의 최전선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시다”고 강조하였다.

□ 양 측은 이 날 통화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공감하고, 향후에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통정책조정과 이은영 사무관(☎044-201-379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